

# 피오, 반전 아날로그 감성 “93년생인데 93학번 느낌”

### MBC ‘전지적 참견 시점’서 관찰 예능 단독 첫 출연 나이에 맞지 않게 상상 이상의 아날로그 감성 자랑해

‘전지적 참견 시점’ 피오가 ‘올드맨’ 감성 속에서 매니저와 아날로그 정(情)을 나눴다.

지난 26일 오후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이하 ‘전참시’) 75회에서는 피오와 홍현희, 오대환이 각자의 매니저들과 함께 하는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2부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5.4%, 2049 시청률 3%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 2부의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닐슨 수도권 가구 기준 시청률이 동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달성했다.

이날 ‘전참시’를 통해 리얼리티 관찰 예능에 단독으로 처음 출연한 피오는 ‘어색’ 그 자체였다. 지나친 카메라 의식으로 차에 타자마자 의미 없는 혼자말을 내뱉는가 하면, 어떤 듯 고장 난 것처럼 버벅거리는 손동작과 멈출 줄 모르는 동공 지진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피오의 또 다른 반전은 트렌디한 비주얼 속 감춰졌던 ‘올드맨’ 감성. “93년생인데 93학번 같다”는 매니저의 제보처럼 피오는 상상 이상의 아날로그 감성을

자랑했다. 그의 아날로그 감성에 스타프들은 “다음에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가라”고 권할 정도였다.

이 가운데 피오는 고등학교 등창들과 함께 만든 극단, ‘극단 소년’의 첫 번째 단편 영화 ‘개릴라’ 시사회를 열었다. 특히 피오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을 직접 예약하고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코디를 준비하는 등 팬들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했다. 매니저 또한 친구들을 살뜰하게 챙겨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다. 뒤늦게 매니저의 케어를 알게 된 피오는 “티를 내지 않으니 몰랐는데, 매니저가 뒤에서 잘 챙겨 줬구나를 느꼈다”며 “형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고, 얼른 친해지면 좋겠다”고 애정 섞인 고백을 전했다.

서로의 관계와 관찰 예능 단독 촬영이라는 낯선 환경이 다소 어색했던 피오와 매니저.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진심으로 시청자들의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 무엇보다 영화 엔딩 크레딧

에 매니저의 이름을 잊지 않고 넣은 피오와 예상치 못한 자신의 이름에 감동한 매니저의 모습은 앞으로 이들이 쌓을 우정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이어서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담 매니저가 생긴 홍현희의 일상이 그려졌다. 그녀의 매니저는 “매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단명할까 걱정이예요”라고 제보하며 등장. 심상치 않은 웃음의 기운을 내뿜었다. 이후 매니저는 아침 라디오 스케줄이 있는 홍현희가 여유를 부릴 때마다 갑자기 재촉하는 등 ‘홍현희 전문 조련사’의 포스를 자랑했다.

매니저의 조언 덕분에 늦지 않게 나온 홍현희는 차에서 이동하는 동안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가 하면, 집에서 챙겨온 꽃과 사과 등을 챙겨 먹은 뒤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 안방극장을 폭소케 했다. 이후 홍현희는 라디오 생방송 중 틈틈이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신공을 발휘하면서도 저 세상 텐션을 자랑하며 역동적인 댄스를 선보여 빈틈없는 재미를



선사했다. 이처럼 홍현희와 매니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등 완벽한 호흡으로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오대환과 매니저가 웹드라마에 카메라로 동반 출연

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촬영을 위해 울산으로 이동하면서 연기 조연을 나누는 등 카메라 출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또 울산 앞바다에서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며 여전한 브로맨스를 자랑했다.

한편 ‘전참시’는 연예인과 최측근들의 말 못 할 고충을 제보 받아 은밀한 일상을 관찰하는 본격 참견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영자, 전원무, 송은이, 양세형, 유병재가 출연하며 매주 토요일 밤 11시5분 방송된다.

## 신해철 5주기...여전히 그리운 가요계 마왕



고(故)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지 5년이 흘렀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마왕’ 신해철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7일에는 고 신해철 5주기 추모 콘서트로 ‘시월’이 서울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린다. 생전에 그와 인연이 있었던 지인들과 그를 추모하는 여러 뮤지션들이 모

였다.

이번 추모콘서트는 김영석, 이수용, 임상목, 홍경민, 데빈, 다빈크, 주니, 김동현, 썬, 이현섭, 최문석, 정구현, 신지, 부활 박안규, 메탈드캐슬 지우, 크래쉬 안홍찬, 플라워 고유진과 더불어 류정현, 정모, 김진환, 알리노 등이 참석해 생전의 곡들을 가리는 무대를 준비했다.

콘서트 주최인 꿈이 이루는 세상 측은 “매년 이맘때면 더욱 그의 노래를 떠올리는 팬들과 그의 빈 자리를 여전히 아쉬워하고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시월’ 추모콘서트는 잠시나마 아쉬움을 잊게 해줄 행복한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 - 유플래쉬’에서는 고 신해철의 노래를 통해 고인을 기렸다. 이날 드림 독주회에서 유재석은 밴드 넥스트의 미발표곡인 ‘아버지와 나 파트II’를 편곡한 ‘스타맨’을 선보였다. 이승환과 하현우가 영상을 통해 ‘스타맨’을 가장했고, 유재석은 비트를 맞춰나갔다. 특히 신해철의 내레이션이 담겨 관객석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승환은 “마음에 부채같은 것이 있었다”며 “서태지의 실력으로 합동 공연을 결심했는데 일주일 쯤 있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음악적 시도도 넣고 싶고, 얼마나 훌륭한 음악인인지 각인시켜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 전도연 “‘접속’ 캐스팅 반대 심했다더라...당시엔 몰라”

### JTBC ‘방구석1열’ 한국 영화 100주년 특집 출연

배우 전도연이 영화 ‘접속’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털어냈다.

27일 오전 방송된 JTBC ‘방구석 1열’에는 전도연이 한국 영화 100주년 특집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전도연은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접속’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당시 신인이었던 전도연에 대한 캐스팅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그때 저는 주변의 반대가 많았는지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쇼 MCD도 하고 연극 지방 공연도 했다. 집에 못들어가고 차에서 생활했다”며 “그런데

다 찍고 나서 그걸 알았다. 배우 같지도 않은 전도연을 어떻게 한석규 영화에 캐스팅할 수 있냐’는 반응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특히 상대 배우가 당대 최고의 배우인 한석규라는 걸 알았을 때 어땠냐고 묻자 전도연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석규 선배님이 영화 쪽 톱이다. 근데 그때 영화를 많이 보러다니지 않아서 나중에 찍으면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게 됐다”고 덧붙혔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광주광역시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